

함께해요! 희망곡성

국민디자인단 과제 최종 보고서

귀농귀촌원스톱서비스

2015. 11.



과제명 귀농귀촌원스톱서비스

과제 분류	자율추진과제	주관 기관 (협업/관련 기관)	곡성군 농정과 (귀농귀촌지원센터)
과제 담당자	서민호 팀장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 061-360-7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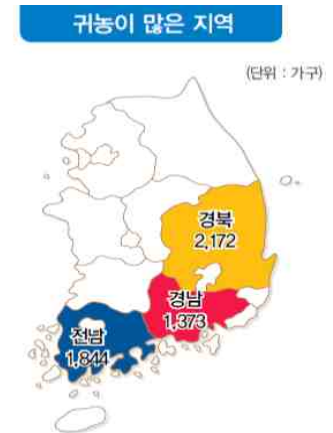
가. 현황 및 문제점 (Problem)

□ 귀농귀촌 초기 정보부족

-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에서 귀농귀촌 인구 급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에서도 귀농이 많은 지역¹⁾에 포함



<그림 1> 귀농귀촌 가구 및 세대원 추이



<그림 2> 귀농 지역 현황

- 이러한 귀농귀촌인 급증 추세에도 지자체의 홍보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도시로의 재이주율이 높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귀농귀촌인의 중도 포기 사례 증가
 - 귀농귀촌 장애요인으로 주택과 농지 구입 등 부동산 정보 부족에 37.5% 응답
 - ▶ 주민 간, 지인 간 부동산 거래 관행화되어 있고, 대면적 접촉에 의해서만 정보 습득이 가능해 정보습득에 많은 노력 필요
 - 재배 작물 선정, 재배방법 등 영농 기술 정보 부족 27.4% 응답
 - ▶ 현장체험형 실습 교육보다 일반적 이론 중심 교육 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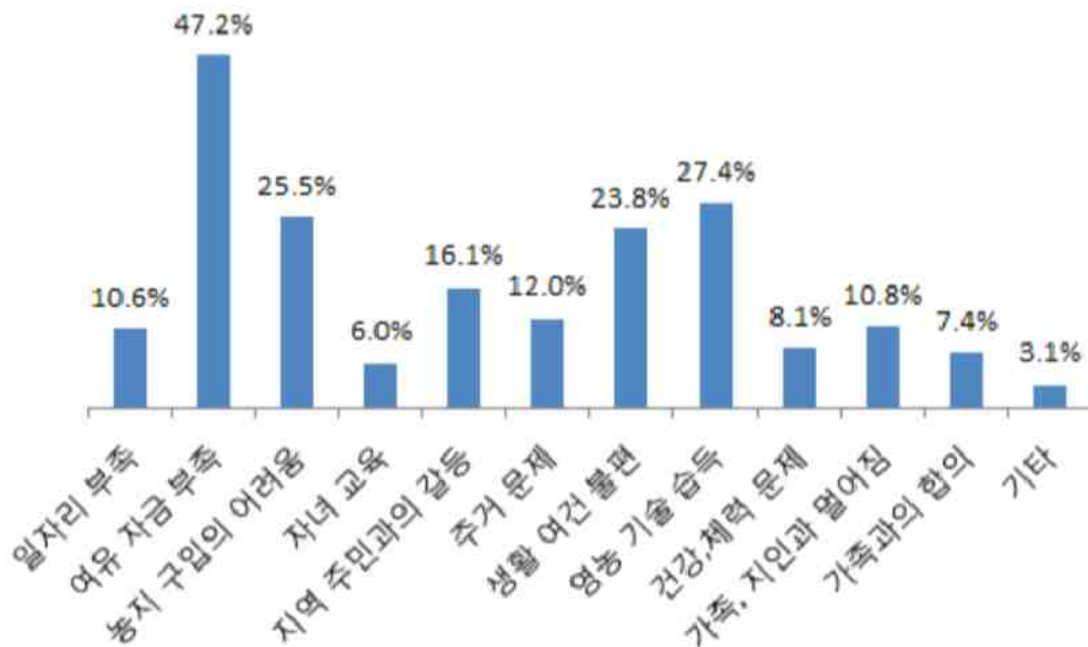
1) '지표로 보는 이슈-귀농귀촌 현황과 과제'에서 그림 1, 2 인용, 2015., 국회입법조사처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

- 상호 이해 부족에 따른 도시 문화와 농촌 문화의 충돌로 원주민과의 갈등 발생
 -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귀농귀촌의 장애요인으로 16.1%²⁾ 응답
 - 지자체의 정책이 귀농귀촌인에 집중되어 정착민의 상대적 박탈감 발생

□ 소득 창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 귀농귀촌 장애요인으로 ‘여유 자금 부족’에 47.2%가 응답하여 경제적 요인이 귀농귀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농업 소득 얻기까지 상당기간 필요하나 농업 외 소득창출 부족
 - 판로 확보, 마케팅 등 작물 생산 이후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 초기 정착 과정에서 대출 등으로 인한 금리 및 취득세 등으로 각종 세금 부담 호소



<그림 3> 귀농귀촌 장애요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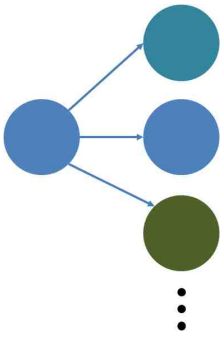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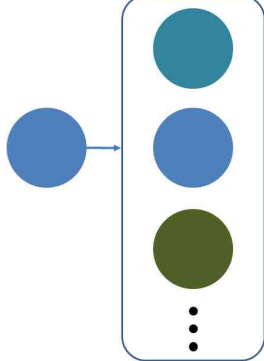

2)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에서 그림 3 인용,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정책 추진 내용 (Solution)

- ◆ (정책 목표) 귀농귀촌 단계별 요구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 보완·개발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 지원
- ◆ (주요 고객) 귀농귀촌 희망자, 초기 귀농귀촌자
- ◆ (추진기간) 15년 1월 ~ 16년 12월
- ◆ (소요예산) 총 1,996백만원(연간 665백만원)
- ◆ (추진체계)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를 민-관 두 축으로 삼아 총괄 사업 계획 및 추진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 구상 및 기획, 홍보활동 참여

□ 귀농귀촌 원스톱 정보 제공 홈페이지 구축

- 부동산 정보, 영농정보, 귀농귀촌인 커뮤니티 등 귀농귀촌에 대한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직관적으로 레이아웃 구성하고 필요한 기능 추가
 -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가 안 되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활성화

As-is	To-be	귀농귀촌원스톱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곳 방문 · 지자체 정보제공형 · 구축 후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곳에서 해결 · 유저 간 정보교환 · 지속적인 유지관리 	

□ 귀농인과 정착민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 귀농인 중심의 재능기부 활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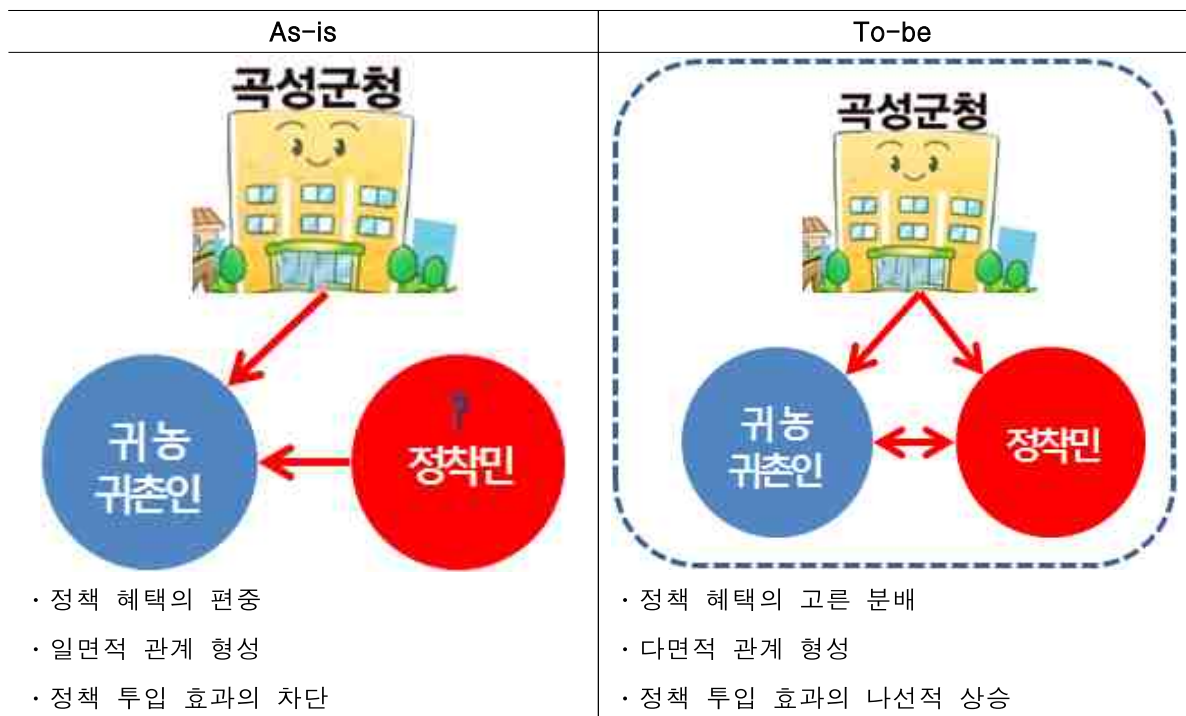
- 장수사진 찍어 주기, 귀농인 밴드 콘서트 등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통해 귀농인과 정착민의 다면적 관계 형성
- 노인돌봄 활동, 자율방범대 활동 등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주민 화합 도모

○ 귀농귀촌 멘토의 집 운영

- 마을 이장 등을 멘토풀을 구성하고 현장형 영농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멘티와 매칭
- 1:1 멘토링 외에 작목별 멘토링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형별 멘토링 프로세스 구축

○ 내실있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 예비 귀농귀촌자 대상 농촌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론 위주의 영농교육을 탈피한 현장체험형 교육 실시
- 새로운 지식 및 기술 습득에 관심이 높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고소득 작물, 친환경농법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 개설



□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 귀농귀촌인 안정적 거주 공간 지원
 - 농가 주택 수리비 및 임대 가능 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 초기 단계 경제적 부담 완화
- 농업창업 및 주택 신축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한 안정 정착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파트타임형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를 통한 농외 소득 창출

As-is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철 외 소득 미발생으로 불안정 · 초기 이자 및 세금 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소득 및 농외소득으로 안정 · 이자 및 세금 부담 완화

다. 정책 추진 일정 (Action Plan)

□ 귀농귀촌 원스톱 정보 제공 홈페이지 구축

- 주택, 토지 등 정보 수집 : '15년 상반기
- 홈페이지 설계·구축 및 시범 운영 : '15년 하반기
- 홈페이지 불편사항 조사 및 개선 : '16년 상반기

□ 귀농인과 정착민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 귀농귀촌인 중심의 재능기부 활동 추진
 -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 자원 조사 및 DB 구축 : '15년 하반기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단 구성 및 운영 : '15년 하반기
 - 재능기부 운영 상황 점검 및 개선 : '16년 하반기
- 귀농귀촌 멘토의 집 운영
 - 멘토-멘티 수요 조사 및 멘토링 DB 구축, 교육 : '15년 하반기
 - 중단위 작목별 멘토-멘티 매칭 : '15년 하반기

○ 내실있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 전문 심화 교육 수요 조사 : '16년 상반기
- 전문 심화 과정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개설 : '16년 상반기
- 현장 체험 수요 및 제공처 발굴 조사 : '16년 상반기
- 현장 체험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16년 상반기

□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 귀농귀촌인 안정적 거주 공간 지원

- 주택 수리비 등 지원 : '15년 하반기
- 농업 창업 및 주택 신축 용자 지원 : '16년 상반기

○ 지역공동체 일자리, 파트타임형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 지역 공공 일자리 조사 및 수요자 매칭 : '16년 상반기
- 지역 민간 일자리 DB 구축 및 귀농귀촌홈페이지 연계 : '16년 하반기

< 연도별 주요 이행계획(금액: 백만원) >

	'14년	'15년	'16년	'17년
주요 이행 계획	해당없음	<p>[귀농귀촌원스톱 홈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 등 실태조사 ·홈페이지 구축 및 시범 운영 <p>[행복공동체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간 업무 협약 ·재능기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p>[정착부담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임대 가능 주택 수리비 지원 	<p>[귀농귀촌원스톱 홈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및 개선 <p>[행복공동체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능기부 커뮤니티 운영 상황 점검 및 개선 ·마을봉사단 구성 및 운영 <p>[정착부담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및 수요도 조사 ·저금리 용자 지원 	<p>[행복공동체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능기부 커뮤니티 운영 상황 점검 및 개선 ·마을봉사단 운영 상황 점검 및 개선 <p>[정착부담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금리 용자 지원
소요 예산	해당없음	595	385	385

라. 기대 효과 및 정부3.0 가치

- **귀농귀촌인의 초기 안정 정착으로 도시로의 재이주를 감소**
 - 귀농귀촌인의 증가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인구 절벽 예방
 - 귀농귀촌인과 정착민 간의 갈등 예방하고 조화로운 공동체 구축
 - 새로운 이주민의 유입으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 제고하고 신기술 농업 육성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 토대 마련

- **국민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의 불편 해소**
 - 귀농 결심 단계에서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준비에 드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예방
 - 멘토링제 운영을 통한 민관 협업을 통한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귀농정책 수립 가능

마. 홍보 계획

- **귀농귀촌 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 상담 활동 및 자료 제공

-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 군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
 - SNS 서포터즈 등을 통한 블로그 홍보 활동 추진
 - * 기획실 홍보팀 SNS 서포터즈 구축 시 가능

-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한 매체 홍보**
 - 군 소식지(분기 1회), 희망곡성알리미(주1회)에 지속 게재
 - 귀농귀촌 관련 정책 및 서비스 관련 기획기사 주기적 보도
 - 군정 홍보 모니터링단을 통해 홍보효과 검증 및 관리

■ 국민디자인단 성과 이행시(도출 아이디어 정책반영 및 실행) 수혜자 경험의 변화

(Before) 오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나(고파머, 남, 43세)는 귀농을 위해 주택을 구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였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은 매물이 별로 없었다. 시골로 직접 내려가서 토지를 알아보았으나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느라 힘들었다. 또한 귀농 후 소득창출을 위해 농작물을 알아보았으나 인터넷 자료로만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찾기에 한계가 느껴졌다. 고된 몸과 울적한 기분으로 귀농귀촌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귀농 초기 원주민과 마찰을 지혜롭게 해결했다는 내용이었으나 과연 나도 귀농을 하면 이웃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다.



(After) 곡성군에서 만든 귀농귀촌원스톱 홈페이지에 관한 소식을 접했다. 토지, 주택 정보는 각종 보조사업 정보, 귀농 귀촌인 교육은 물론 귀농인 커뮤니티까지 활성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기도 편했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어 재빨리 접속했다. 가장 필요했던 주택과 토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군에서 주택수리비나 신축 융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한결 부담을 덜었다. 또한 귀농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선배 귀농인을 통해 실제 부동산 구입 경험에서 작물 재배 경험까지 귀농에 필요한 A~Z까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곡성군에서 귀농인과 정착민 간의 유대를 위해 재능기부활동을 추진한다는 말에 그간 취미로 익혀온 사진을 이용해 시골 어르신들 사진을 찍어주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한껏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또한 실제 농업 경험이 풍부한 마을 주민들과 다양한 멘토제가 운영되고 있어 현장체험형 영농 기술을 배워보고, 귀농인 전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영농기술도 배워볼 생각에 귀농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났다.

■ **(미션)** 곡성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책수요자인 귀농귀촌인을 직접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관찰하여야 한다. 귀농귀촌인들은 초기에 정착방안과 정착 후 소득 창출 방안에 관심이 많다. 초기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고, 소득창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일반시민, 대학생, 사업담당 공무원 등 5명~7명

구분	성명/소속/직위	연락처/이메일	활동 소감
전문가	김선암 박사 (전남생물방제 연구원)	010-xxxx-6589	쉽지 않은 과제였다. 쉬운 과제였다면 이미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고 믿는다.
정책 수요자	임재용 (귀농인)	010-xxxx-0861	귀농귀촌인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가 좋았다. 처음에 국민디자인이란 것이 무엇인지 몰라 어려웠지만 의미있는 시도였다.
	박창열 (귀촌인)	010-xxxx-5312	머리를 맞대면 꼭 막힌 문제도 해결이 된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이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 국민디자인단의 방향은 옳다.
주관부서 (사업담당)	서민호 팀장 (농정과)	360-7471	귀농귀촌은 인구 감소로 힘들어 하는 지자체의 희망이다. 수요자의 목소리에 보다 귀기울여 만족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총괄부서 (정부3.0)	손인자 팀장 (기획실)	360-8311	국민디자인단은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의 변화를 위한 정부3.0의 핵심이다. 투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을 통해 우리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대리인이어야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최철호 주무관 (기획실)	360-8269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빠를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요자가 진정 원하는 것을 놓칠 우려가 있다. 짧았던 1년의 국민디자인단 활동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행정의 목적을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였다.

■ (아이디어 제안) 다양한 부류로 구성된 디자인단 개인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을 관찰하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이나 희망자들은 시골생활에 동경은 있지만 막상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며 그 정보들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장되길 바라는 양면적인 성향이 있다. 시골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부는 마을 사람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귀농귀촌인이 겪는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가 경제적 문제다. 초기 정착을 위해 주택, 토지 등 목돈이 들어가며, 시골에 적당한 소득원이 없어 귀농 3년 이내 포기할 확률이 높다. 또한 농사에 성공하더라도 판로개척 등이 쉽지 않다.”

이에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 ① 귀농귀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홈페이지가 개발하자. 주택, 토지, 영농 정보는 물론 각종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정보만 나열된 홈페이지가 아닌 사람이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중에는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족적 시스템으로 만들자. (제안자 : 김선암)
- ② 귀농인과 정착민 사이에 발생하는 묘한 갈등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귀농인의 경우 시골정서를 모르고 어색함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다. 멘토링제를 통해 서로 대면접촉을 늘리고, 귀농인이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재능기부 등을 함으로써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안자 : 임재용)
- ③ 뭐니뭐니해도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골 지역의 주택과 토지가 생각보다 비싸고 귀농 초기 목돈이 많이 들어 생각만 있고 시도를 하기 어렵다. 초기 귀농인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하거나, 보조금 및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목돈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안자 : 박창열)

■ **(실행) 귀농귀촌원스톱 서비스가 주제이다 보니 종합적 해결안을 제시하다 많은 정책이 나왔다.** 제안된 정책 중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실행을 위해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업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매년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활동 총평)**

- 좋았던 점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생각에 젖어있었으나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행정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었다.

- 아쉬웠던 점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교육과 연습 없이 기한을 정해놓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에 대한 애로가 많았다. 개념과 방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초반에 잘못 잡은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가면서 진행하다보니 진행이 더뎠고 피로감이 쌓였다. 서비스디자이너 없이 비전문가들만으로 추진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 때문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 향후 개선/희망 사항

대부분의 일반인 및 공무원은 1%를 잡아내는 눈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마다 개별 코칭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디자이너가 필요하다.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1차 워크숍

- 일 시 : 2015. 8. 26.(수)
- 장 소 :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참 석 자 : 5명(정부3.0 담당자, 귀농귀촌팀장, 전문가, 주민 2)
- 내 용 : 국민디자인 방법론 숙지, 디자인과제 구체화
- 관련사진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2차 워크숍

- 일 시 : 2015. 10. 5.(월)
- 장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여성플라자
- 참 석 자 : 2명(정부3.0 담당자, 귀농귀촌팀장)
- 내 용 : 디자인단 활동내용 발표, 과제 분야별 팀 토론 및 과제물 작성 실습
- 관련사진 및 발표 PPT



- **지자체 과제명 :**
귀농귀촌인과 정착민의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 **과제선정 배경**
 - 귀농귀촌 초기 정보부족으로 인한 안정적 정착 어려움
 - 문화차이 및 원주민의 배타성으로 인한 갈등 발생
 - 판로 확보 및 농외 소득 창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불안정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1차 팀미팅

- 일 시 : 2015. 10. 1.(목)
- 장 소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 참 석 자 : 4명(정부3.0 담당자, 귀농귀촌팀장, 주민 2)
- 내 용 : 핵심이슈 도출, 비즈니스모델캔버스 작성, 정책수요자 및 퍼소나 설정, 고객 여정맵 작성, 각종 문헌 조사 및 토론
- 관련사진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2차 팀미팅

- 일 시 : 2015. 10. 29.(목)
- 장 소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 참 석 자 : 4명(정부3.0 담당자, 귀농귀촌팀장, 주민 2)
- 내 용 : 서비스 목표 수립, 스토리보드 작성 등 국민디자인단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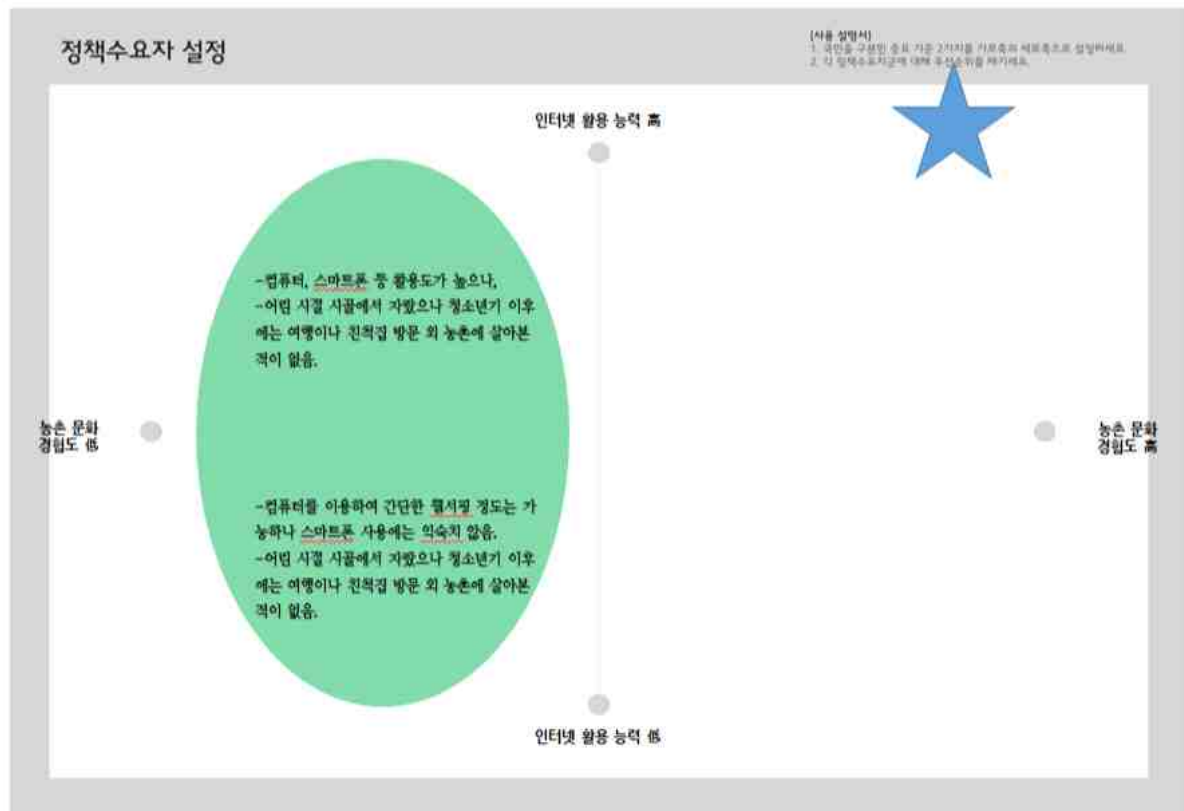
- 지자체 과제명 : 귀농귀촌원스톱서비스
- 과제선정 배경
 - 귀농귀촌 초기 정보부족으로 인한 안정적 정착 어려움
 - 문화차이 및 원주민의 배타성으로 인한 갈등 발생
 - 판로 확보 및 농외 소득 창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불안정

• 구체적인 서비스의 구조를 정책적의 형태로 정리합니다.

[부록 02] 03 [부록 03]



[부록 03]



이해관계자맵

핵심대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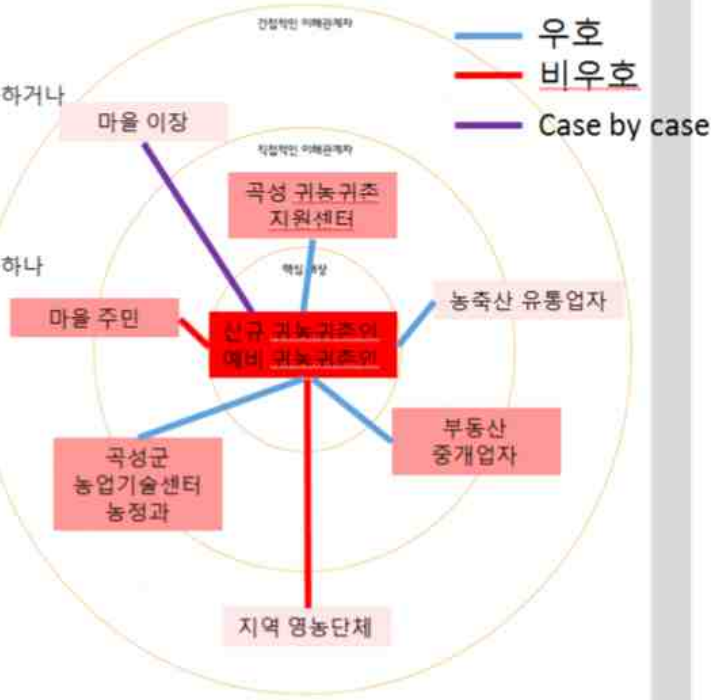
직접적 이해관계자 :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직접적 간여하며 이들의 개입이나 도움 없이는 정착이 불가능하거나 큰 어려움이 따른다.

간접적 이해관계자 :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간접적으로 간여하며 이들의 개입이나 도움이 없어도 정착이 가능하나 도움이 통해 더욱 쉽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귀농귀촌인에게 활력을 줄 수 있다.

핵심대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관계 및 역할



- [사유 설명서]
1. 그림의 중심에 핵심 대상을 적습니다.
 2. 핵심 대상(참석수요자)을 기준으로 가까운 영향력수록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적습니다.
 3.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 비우호적 등인지 표시해 줍니다.

-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는 특징을 가상으로 설정하되, 정책수요자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열합니다.

[부록 14_페이지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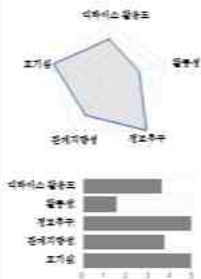
퍼스나

- [사유 설명서]
1. 도시인 수요자들과 중요 명칭, 패턴 및 직관을 적어주세요.
 2. 각 퍼스나에게 특성을 부여하고 상세설명을 적어주세요.
 3. 퍼스나 유형별 특성을 위해 하단 다이어그램에 표시하세요.



이름: 코파리
성별: 남 나이: 43

직업: 예비귀농귀촌인
가족: 기혼 1남 1녀
성격: 내향적
관심사: 사진, 트래킹



“ 귀농귀촌으로 오순도순 정겨운 삶을 살고 싶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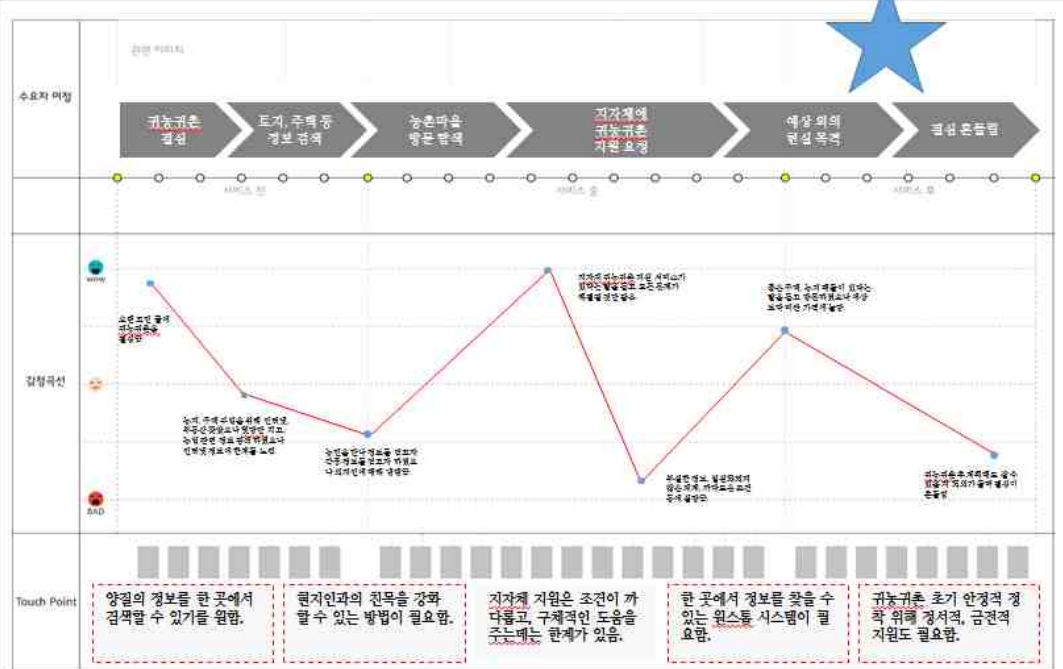
- Needs :**
-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여러 곳을 헤매지 않고 한 곳에서 찾고 보람
 -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자생력이 잘해 달라는 것은 원치 않음.
 - 초기 정착 비용 부담 완화
- Tasks :**
- 대도시 중견기업 회사원 경력
 - 귀농귀촌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음.
- 특징 :**
- 스마트폰 및 컴퓨터 활용도가 높음.
 - 시골인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있으나 구체적인 경험은 많지 않음.
 - 직장생활 10년 전 아내와 2명의 아이를 두고 있어 경제적 여유분이 많지는 않음.
 - 자생력이 잘해 달라는 것은 싫어하나 공격 현대 등을 통해 자립할 여유가 있음.
 - 복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함.
 - 낙농적 성격으로 인해지기 이전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낌.

경험 시나리오 :

- 중견기업 10년간 회사원이었으며 회사 생활 시 주말이면 가족들과 주말 농장을 찾아 즐거움을 느꼈다.
- 주말농장에서 즐거움을 느껴 관심 있는 나무 몇 그루를 파분에 심었으나 재배지식이 없어 고사시켰다.
- 어떤 시골을 시골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청소년기에 대도시로 이사 가서 현재까지 살아옴.
- 주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인터넷에서의 정보 검색, 상품 구입을 한다.
-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였으나 지나치게 개인적 시간을 많이 썼기 그만 두었다.
- 막달이 있는 길에서 길고자 시골에 집을 짓기 위해 알아보았으나 교통의 부재, 예산보다 비싼 땅값에 당혹되고 있다.
-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지만 누군가 분위기를 주도하지 않으면 어색해진다.
- ~~리, ~~단 등 대규모 단체활동보다는 3~5명의 소규모 모임이 즐겁다.

고객(정책수요자)여정맵

(사용 설명서)
 1. 정책수요자의 경로를 순차적으로 기술하세요.
 2. 수요자 경험과 감정태도를 분석하세요.
 3. 희망한 현재 시점 이미지를 표기하세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수록, 관련 경력에서 기반이 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를 도출하세요.

[출처: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핵심이슈 도출

이주 및 거주 관련 정보 부족

이주 및 거주 관련 정보 부족
 귀농귀촌 결심 후 초기 단계에서 도시 및 농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느낌

상호 이해 부족

상호 이해 부족
 도시 문화와 농촌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 발생

귀농귀촌 후 경제적 어려움

귀농귀촌 후 경제적 어려움
 귀농귀촌 후 농업 소득을 얻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여 초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 느낌

귀농귀촌 결심 후 초기 단계에서 도시 및 농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느낌
 도시 문화와 농촌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 발생
 귀농귀촌 후 농업 소득을 얻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여 초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 느낌

서비스 목표 수립

[사명 설명서]

1. 혁신 전자서비스의 문제 발생지점(Fault-occur)을 찾아냅니다.
2. 각 장애원인 내용과 대응되는 기회요소를 적습니다 (자율성 반영)
3. 기회요소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지향할 방향을 도출합니다.

주택, 토지 정보
수집 어려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읍면사무소, 이장단 등 네트워크
-귀농귀촌인의 수준 높은 정보화 능력

귀농귀촌
원스톱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주민과의 갈등 발생

초기 비용 부담

-귀농인의 다양한 재능
-마을이장단 등 멘토 역할 자원 풍부
-농업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재능기부,
멘토링제
운영,
전문교육

형식적인 영농교육

소득 창출 어려움

-도시민 유치 지원 보조금
-RPC 등 지자체 출하 시스템
-도시지역 자매결연 단체

정착지원금,
공동출하
시스템 구축

스토리보드

[사명 설명서]

1. 서비스 단계의 주요 장애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찾아내세요
2. 핵심 사건과 기회요소를 도출해 보세요.

서비스전행:



도시생활을 할만큼 해봤어.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귀농하기로 결심했어



티브리를 보니 귀농해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고 하니 걱정이 되네



인터넷으로 귀농귀촌을 위해 정보를 검색하는데...



부동산, 집, 영농기술, 주민과의 갈등 예방법 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검색도 힘들고 자료도 부실해. 귀농 선택 잘한 것일까? 잘할 수 있을까?



귀농귀촌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업데이트 정보는 버리고 알찬 정보만 제공해!!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귀농인들과 교류도 가능해. 이걸 왜 이제야 알았지~!!



꼭성군 귀농귀촌원스톱 홈페이지와 이제 행복한 귀농을 시작하는거야~!!

□ **현황 및 문제점**

- 귀농귀촌 초기 정보 부족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
- 소득 창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 **추진 내용**

- 귀농귀촌 원스톱 정보 제공 홈페이지 구축
 - 토지 및 주택 , 귀농귀촌인 커뮤니티, 영농기술 등 정보 제공
- 귀농인과 정착민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 귀농인 중심의 재능기부 활동 추진
 - 귀농귀촌 멘토의 집 운영
 - 내실있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 농가주택수리비 등 지원을 통한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 농업창업 등에 대한 융자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일자리 정보 제공 및 매칭을 통한 농외 소득 창출

□ **향후 계획(일정)**

- 귀농귀촌 원스톱 홈페이지 구축 및 시범 운영 : ‘15년 하반기
- 귀농인과 정착민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 재능기부 자원 조사 및 운영 : ‘15년 하반기
 - 멘토멘티 수요 조사 및 DB 구축·운영 : ‘15년 하반기
- 주택수리비 지원, 신축 융자 지원 등 : ‘16년 상반기
- 일자리 정보 조사 및 연계 : ‘16년 상반기

첨부5

국민디자인단 도출 성과(정책 아이디어) 실행 계획

도출 성과 (정책 아이디어)	정책 반영 및 실행 계획
① 귀농귀촌 원스톱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도 하반기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범운영하고 - '16년도에 문제점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홈페이지 개선 방안 수립
② 귀농인과 정착민의 행복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재능기부 자원을 조사하여 DB화하고 -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능기부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를 통해 '16년 하반기 개선방안 수립 - 멘토-멘티의 경우 1:1멘토링 외에 작목별 멘토링제 등 중소규모 집단 멘토링제 구축 등 다양한 유형의 멘토링제로 발전 - 기존 교양 수준의 귀농귀촌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16년 상반기 전문심회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하반기에 교육을 개설하여 프로그램 운영
③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상반기에는 공공 일자리 조사하여 DB화하고 귀농귀촌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정보 제공 - '16년 하반기에는 지역의 민간 일자리를 DB화하여 원스톱으로 정보 검색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홈페이지 연계

[기타] 국민디자인단 활동 보도자료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곡성군 현안 문제는 주민이 직접 해결한다

(입력) 2015-08-26 15:07:20 (수정) 2015-08-26 15:07:38

(태그) 곡성군, 행정자치부

호남권 기초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 추진단 제1차 워크숍 개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워크숍.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지역 주민의 생활밀착형 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3.0 국민디자인 추진단의 활동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6일 오후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초지자체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곡성군은 '귀농·귀촌인과 정착민의 행복공동체'를 주제로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곡성군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은 지역현안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곡성군 자율적으로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워크숍에서는 '곡성군의 시군구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의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과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곡성군 정부3.0 국민디자인단 곡성군 주민 대표 A씨는 "워크숍을 계기로 공급자 입장에서 수립된 공공 서비스가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군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